

# 中醫書院 ‘侶山堂’ 講學과 ‘錢塘醫派’

이민호

한국한의학연구원

## Education in an Academy of Chinese Medicine *Lüshantang*(侶山堂) and the *Qiantang Medical School*(錢塘醫派)

Minho Le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Qiantang Medical School*(錢塘醫派) represented by *Zhang Zhicong*(張志聰) via focusing on an academy of Chinese medicine named *Lüshantang*(侶山堂). The teaching method in *Lüshantang*(侶山堂) displays a representative feature of the *Qiantang Medical School*(錢塘醫派), but the foundation of the method consisting of lectures and discussions had already been laid by *Lu Zhiyi*(盧之頤) during the Ming-Qing transition period. The tradition was succeeded by *Zhong Xuelu*(仲學輅) in the *Hangyuan Medical Board*(杭垣醫局) even after *Lüshantang*(侶山堂) was burnt down during a war taken place under the *Qianlong*(乾隆) period.

That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the local Confucian academies, which had been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Confucian classics and local issues, were changed to adopt the education of medicine which had been treated as a lesser subject may be interpreted as a gradual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of medicine. The change in the function of the Confucian academies combined with the tendency in which the literati elites of the period left the Confucian philosophy for medicine presents one of many examples showing the changes occurred during the Ming-Qing transition period.

The education of medicine provided by the Confucian academies is regarded histor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was offered by ordinary civilians rather than the government before the formal school edu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modern period. This educational tradi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ridging the Chinese medicine in the medieval times with that in the modern period.

keywords : Chinese Medical Academy, Local Medical Studies, *Qiantang Medical School*(錢塘醫派), *Lüshantang*(侶山堂), *Zhang Zhicong*(張志聰)

### I. 서 론

중국사에서 明末·淸初 시기는 장기간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하나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당시는 한족 정권에서 이민족인 청조로의 권력이동과 ‘資本主義萌芽’<sup>1)</sup>의 대두, 새로운 학술사상의 출현, 서양문화의

유입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의학도 경제성장과 ‘棄儒爲醫’ 현상의 출현 등을 발판삼아 학술과 임상 양 방면에서 커다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sup>2)</sup>

1) 中國에서 ‘資本主義 萌芽’ 논쟁은 1950~60년대에는 萌芽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적인 테마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데 비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걸친 연구는 萌芽 그 자체의 존재 보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봉건제가 존속했던 원인추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 尙鉞, 「中國資本主義生産因素的萌芽及其增長」, 『歷史研究』, 1955-3; 尹進, 「關於中國農業中資本主義萌芽問題」, 『歷史研究』, 1980-2 등 참조.

또한 당시에는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地域醫學’이 발달하였다. 특히 상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선진지역인 徽州<sup>3)</sup>와 杭州 등 ‘江南地域’<sup>4)</sup>에서는 새로운 의학유파의 활동이 성행하였다. 그것은 이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데, 江南 사람들의 몸은 강건한 북방인들에 비해 섬세하고, 유행하는 질병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학설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sup>5)</sup>

한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학술 유파가 형성되었는데, 예를 들면 徽州의 新安醫家도 溫補培元派와 傷寒錯簡重訂派 등 다양한 학파가 존재했다.<sup>6)</sup> 또한 당시 경제·문화 중심지인 浙江 지역에서는 ‘溫補學派’, ‘紹派傷寒’ 등과 더불어 錢塘(杭州)에서 중국의학사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錢塘醫派’가 탄생했다.<sup>7)</sup> 明·清代 杭州는 걸출한 의학자인 소위 ‘錢塘三張’(張淦辰, 張志聰, 張錫駒)을 배출한 당시 중의학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으로<sup>8)</sup> 청대의 王琦는 “順治-康熙初까지 40여 년 동안 外郡 사람들이 武林<sup>9)</sup>을 칭하여 醫薈라 했다.”<sup>10)</sup>고

평가했다. 또한 ‘錢塘醫派’는 醫·教·研 삼위일체의 학파로 ‘維護舊論’<sup>11)</sup>을 주장하고, 다수의 명의를 배출하기도 했다.<sup>12)</sup>



(Figure 1) 侶山堂舊址 紀念碑

그러면 明末 이래 杭州 지역에서 의학이 발전하고 다수의 명의를 배출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明末 이래 杭州의 인문적 환경, 특히 ‘侶山堂’<sup>13)</sup>이라는 중의서원에서의 강학과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의학파인 ‘錢塘醫派’에 주목하고자 한다. 書院講學은 明末 이래 강남지역에서 형성된 중요한 사회·문화 현상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학술유파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14)</sup>

이에 본고에서는 杭州에 세워졌던 중의서원인 ‘侶山堂’을 중심으로 한 중의학 연구와 학파 형성과정 및 강학 활동이 지역의학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錢塘醫派’ 및 明·清代 杭州 지역의학에 대한

2) 이민호, 「明中期 民間 醫藥業의 成長과 ‘棄儒爲醫」, 『중국사 연구』, 2008:55.  
 3) 明·清代 徽州商人의 발원지인 휘주에서는 소위 ‘신안의학’이 발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민호, 안상우, 「명청시대의 신안(휘주)의학-유·상·의 삼위일체의 문화구조」, 『한국의사학회지』22-2, 2009, pp.15-22. 참조.  
 4)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江南地方’은 江蘇省의 蘇州·松江·常州·太倉의 4府州와 浙江省의 嘉興·湖州·杭州의 3府 등 지역이다. 이 지역은 東으로는 黃海, 西로는 山區 사이에 위치하는데, 모두가 太湖 주변 지역이어서 대소의 허다한 河流가 貫流할 뿐만 아니라 杭州로부터 北京에 이르는 운하연변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여 온난다습하면서도 四季가 분명하고 연평균 기온이 15~16℃ 안팎에 성장기간은 매년 220~230일 정도이고, 연평균 강우량이 1,000~1,400mm 정도의 풍부한 우량으로 인하여 토지가 비옥하여 稻作과 桑麻棉의 種植에 적당한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의 도시들은 시내에도 河流가 중형으로 교차할 뿐 아니라 이와 연결된 무수한 수로망이 분포하고 있어 수리관개와 교통이 대단히 편리하다.(吳金成, 「明·清時代의 江南社會-都市의 發達과 關聯하여」, 조영록 외, 『中國의 江南社會와 韓·中交涉』, 김문당, 1997, p.95 주1) 참조.)  
 5) 이충열, 「중국의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중국의학사의 최근 연구 동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1), p.48.  
 6) 明·清代 新安醫學의 學術 流派에 대해서는 汪滬雙, 牛淑平, 「試述新安醫學의 ‘學派’與‘流派」, 『中醫文獻雜誌』2000年 4期;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派」,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2-4, 2000; 彭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2-3, 1996. 등 참조.  
 7) 陳春圃, 「浙江中醫主要學術流派」, 『中華醫史雜誌』29-4, 1999, pp.235-238.  
 8)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朱德明, 「錢塘醫派述要」, 『中華醫史雜誌』34-2, 2004, p.74.  
 9) 武林은 錢塘, 즉 杭州의 별칭이다.  
 10) 王琦, 『侶山堂類辨』, 「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8. “自順治至康熙之初40年間, 外郡人稱武林爲醫薈”

11) 崔京艷, 「清朝中醫書院教育」, 『亞太傳統醫藥』2007年 第5期, p.91.  
 12) 陳宇光, 周高峰, 「從盧之頤到錢塘醫派」, 『吉林中醫藥』25-12, 2005, p.3.  
 13) ‘侶山堂’이라는 명칭은 蘇東坡의 「蘇壁賦」 중에서 “侶魚蝦而友麋鹿”이라는 구절에서 “侶伴以傍山”의 의미를 취해 지었으나, 清乾隆年間에 兵變으로 인해 훼손되어 현존하지는 않는다.(李珍, 「吳山脚下“侶山堂”-寄情“錢塘醫派”」, 『中醫藥文化』2008年 第3期, p.27) 2008년 3월 이곳에 ‘侶山堂’정비를 세우고 개막의식을 진행하였다.  
 14) 杭州의 ‘侶山堂’과는 별도로 1792년부터 1803년까지 蘇州에서는『吳醫滙講』을 발간하였는데, 이 또한 당시 강남 지역 의학계의 강학과 백가쟁명의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崔京艷, 「清朝中醫書院教育」, 『亞太傳統醫藥』2007年 第5期, p.90.)

이러한 분석은 종래 사회경제사 영역에서 국한되었던 중국지역사 연구를 중의서원을 매개로 한 의학사 분야에 적용하는 의미도 있다.

## II. 본 론

### 1. 杭州의 社會·經濟環境과 ‘錢塘醫派’의 形成

양자강 삼각주의 남단에 위치하여 南宋代 建都 이래 중국 정치, 경제, 문화 및 의학의 중심지였던 杭州는 明·清代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바탕으로 醫藥學 지식의 보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의학교육, 의료시설, 의학연구조건 등에서 기타 지역과 비교해 우위에 있었다.<sup>15)</sup> 의학 발전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杭州는 중국내에서 가장 선진 지역이었다. 明末 이래 杭州의 수공업 발달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방직, 제지, 인쇄, 조선업 등이 번성하고, 농업경제 또한 크게 발달하여 의학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가 확립되었다. 明·清代 浙江은 저명한 자연과학자와 문화예술가를 배출하였고, 과거 합격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杭州가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중의학 관련 학문이 발달하고 학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높은 교육열과 서원의 융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중국에서 서원이 창시된 것은 唐代이지만, 宋代 들어 번성하기 시작해 河南의 嵩陽書院, 睢陽書院, 湖南의 岳麓書院, 江西의 白鹿洞書院의 4대 서원이 세워졌다. 서원의 창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것은 주로 도서의 수장과 교감, 정리를 위함이었고, 다음 민간에서 설립한 것은 개인의 독서와 학문 연구를 위한 장소였다.<sup>16)</sup> 唐末 이래 중국에서는 1,000여 년의 발전과정 중에 ① 讀書를 위한 서원, ② 藏書를 위한 서원, ③ 著書를 위한 서원, ④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한 서원, ⑤ 군사교육을 위한 서원, ⑥ 언어교육을 위한 正音書院, ⑦ 외국어 교육을

위한 서원과 더불어 ⑧ 의학교육과 진료를 위한 서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서원이 출현하였다.<sup>17)</sup>

明代 서원은 초기 100년 동안 과거로 인해 잠잠했으나, 이후 유학 대가들의 영향으로 다시 흥성하였다. 明中期 이후 관학이 점차 그 본래의 성격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학문에 뜻이 있는 지방장관 및 지역 紳士層이 중심이 되어 송대 이후 향리에 존재하였던 서원을 중건 또는 개설하기 시작하였는데 嘉靖年間 (1522-1566)부터 그 수가 격증하였다. 그러나 명조의 입장에서 보면 서원의 발달은 원치 않는 바였다. 왜냐하면 서원에서 강의 내용이 자주 정부의 사상통일 정책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기 이후 부단히 지적되어 온 소위 士人의 學弊, 즉 異端思想이 더욱 만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이에 萬曆7年 (1579)에는 常州知州 施觀民이 民財를 科斂하여 書院을 개창하였기에 그를 면직시키기와 동시에 그 건물은 衙門에, 토지는 이갑에 귀속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의 서원을 폐쇄토록 하였다.<sup>19)</sup> 다음 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書院閉鎖를 재강조하고 있으며,<sup>20)</sup> 萬曆9年(1581)까지 전국에서 紫陽, 崇正, 金山, 石門, 天泉書院 등 5개 서원만을 남기고 64개 서원을 폐쇄하였다.<sup>21)</sup> 하지만 萬曆10年(1582) 張居正<sup>22)</sup> 사후 서원은 지역 공론의 장으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청초에는 한족 사대부의 서원을 중심으로 한 향청 운동의 영향으로 서원 활동에 대한 금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회가 안정을 되찾은 擁正11年(1733) 다시 허가되었다.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여 통계에 의하면 청대 들어 새롭게 세워지거나 개조, 혹은 復設된 서원이 1,900여 곳에 달하였다.<sup>23)</sup> 杭州

17) 鄧洪波, 「中國書院的類型和等級」, 『貨夏文化』 2000年 第4期, p.47.

18) 吳金成, 「張居正의 教育政策 - 地方教育振興策을 中心으로-」, 『歷史教育』 14, 1971, p.101.

19) 『明神宗實錄』 卷83, 萬曆 7年 正月 戊辰條.

20) 『明神宗實錄』 卷102, 萬曆 8年 7月 戊寅條; 同 卷103, 萬曆 8年 8月 庚戌條.

21) 『明神宗實錄』 卷117, 萬曆 9年 10月 丙午條.

22) 張居正은 湖廣(지금의 湖北) 江陵縣 사람으로 字는 叔大, 號는 太岳이다. 嘉靖26年(1547) 23세의 나이로 進士에 합격하여 翰林院 庶吉士로서 관료생활을 시작한 이래 嘉靖 39年(1560) 右春坊右中允이 되어 중앙관이 되었다. 이어서 隆慶元年(1567)에는 權臣인 徐階(1494-1574)의 추천에 의하여 吏部左侍郎兼 東閣大學士로서 內閣에 진출하였으며, 萬曆元年(1573)부터 10年(1582)까지 內閣首輔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이민호, 『근세중국의 국가경영과 재정』, 한국학술정보, 2008, pp.181-226, 참조.

15) 朱德明, 張承烈, 「錢塘醫家學派沿革的區域時代背景」, 『浙江中醫學院學報』 27-4, 2003, p.12;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朱德明, 「錢塘醫派述要」, 『中華醫史雜誌』 34-2, 2004, p.78.

16) 孫培青 主編, 『中國教育史』(修訂版), 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p.204.

에서도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서원이 설립되어 인재 배양의 장으로 중의서원인 侶山堂 외에도 敷文書院(明代의 萬松書院), 紫陽書院, 詒經精舍 등이 있었다.

清代는 서원 발달의 전성기였지만, 주류는 역시 과거 준비를 위한 ‘팔고문’을 학습하거나 ‘경세치용’의 학문을 연구하는 서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의교육을 위한 중의서원은 수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원교육이 중의학 교육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으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주류서원의 중의학에 대한 영향은 중의학가 중 상당수가 서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陳修園은 福州 鷺峯書院에서 수학했고, 근대의 丁福保와 曹穎甫는 江陰南菁書院을 졸업했다. 이들이 서원에서 학습한 經典과 詩文은 의학 연구의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둘째, 侶山堂을 필두로 하는 중의 서원은 중의학 지식을 직접 전파했던 곳으로清代 중의 교육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明·清代 杭州 지역 출신 관료 중에서 醫藥學에 정통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이 지역의 의학 중시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관료가 직접 의료를 행하기도 했거나 그들이 의학을 중시했다는 점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明·清代 杭州에서 중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 가운데 하나는 인쇄 출판업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서적의 출판은 16세기 중반부터 격증하기

시작한다.<sup>25)</sup> 물론 이러한 서적 출판의 격증은 상인이 참여하는 도서시장의 형성과 도서의 상품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胡應麟은 明·清代 4대 도서시장으로 北京, 金陵, 閩闔과 더불어 臨安(곧 杭州)을 들고 있다.<sup>26)</sup> 明代 杭州는 절강 최대의 서적 출판지로 刻書坊이 24가에 달할 정도였다.<sup>27)</sup> 杭州의 刻書坊에서 대량으로 출판한 의학서적은 민간의 의학 종사자에게 적지 않은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역의학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明中期 이래 학위소지자의 급증으로 인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었던 사대부 중에서 유학을 버리고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당대 영향력이 컸던 사상가들은 士·農·工·商의 전통적인 四民觀에서 탈피하여 商工人 계층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王陽明은 新四民論에서 4民은 직업을 달리 하면서도 길을 같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재능에서 결과한 上下의 ‘分’이나 士와 農·工·商의 ‘分’이 서로 모순하지 않는 기능적·분업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민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다.<sup>28)</sup> 明末의 경제사상가인 黃宗羲 역시 전통적인 농본사상을 비판하면서 “공업과 상업도 모두 본업이다(工商皆本)”<sup>29)</sup> 라고 하여 종래 본업인 농업에 비해 末業이라 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던 공업과 상업의 위치를 끌어 올렸다. 중국에서 醫者는 ‘病工’이라 하여 士나 農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으나, 明中期 이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던 것이다.

明代 사대부의 家規 중에는 ‘남자는 治生을 급선무로 삼아야 함’(男子要以治生爲急)<sup>30)</sup>을 강조하면서 ‘棄儒

23) 崔京艷. 『清朝中醫書院教育』. 『亞太傳統醫藥』 2007年 第5期. p.91.

24) 明·清代 醫藥學에 정통한 杭州籍의 官僚와 그들의 전공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	성명	직관	전공
明	吳毓昌	內閣中書	內科
明	沈士逸	游洋將軍	內科
明	吳瓚	知州	內科
明	倪居敬	保冲大夫	內·外科
明	張懋忠	教諭	內科
明	盧淳熙	稽勛郎	內科
清	呂震	州判	內科
清	連文冲	戶部郎中	流行病科
清	仲學輅	教諭	內科
清	吳樽	內閣中書	內科
清	林闌	通判	內科
清	連自華	知府	內科
清	孫日烈	巡檢	內科

朱德明, 張承烈. 『錢塘醫家學派沿革的區域時代背景』. 『浙江中醫學院學報』 27-4. 2003. p.12. 참조.

25) 宋代 이래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嘉靖年間 이후 약 100년 동안에 발행된 서적의 수량이 宋·金·元에서 明 正德年間까지 약 600년 동안 간행된 것보다 많다. 이를 통해서 宋 이래 발전된 인쇄 사업이 명말에 이르러 큰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大木 康. 『明末江南における出版文化の研究』. 『廣島大學文學部紀要』 50卷 特輯號1. 1991. 참조.)

26)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卷 4. 『經籍會通四』.

27) 朱德明, 張承烈. 『錢塘醫家學派沿革的區域時代背景』. 『浙江中醫學院學報』 27-4. 2003. p.13.

28) 曹永祿. 『陽明思想에 있어서의 「分」의 문제-社會思想으로서의 성격-』. 『동양사학연구』. 1973;6. p.68.

29) 黃宗羲. 『明夷待訪錄』. 『財計』.

30) 余英時 著, 鄭仁在 譯. 『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166.

就賈’(유를 버리고 상업으로 나아가는)<sup>31)</sup> 혹은 湖廣麻城의 鄒順菴의 예에서처럼 ‘棄儒爲醫’(유를 버리고 의사가 되는)<sup>32)</sup> 현상도 출현하고 있다. 즉 누차 과거 시험을 치렀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功名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33)</sup> 물론 이러한 현상 뒤에는 끊임없는 인구 증가에 비해 거인·진사의 정원은 결코 이에 상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sup>34)</sup>

이처럼 明·清代 杭州는 중국에서 ‘자본주의 맹아’의 발원지로 지역의학과 학술유파가 형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라 할 수 있는 경제가 발달해 있었고, 이전과는 다른 사상 분위기와 서원의 발전 등 학문이 성숙할 수 있는 인문환경이 조성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 ‘錢塘醫派’의 代表人物과 그 傳承

錢塘醫派는 明末·清初에 형성되어 清末 光緒年間(1875-1905)까지 200여 년간 걸출한 의학인물을 배출하였는데, 사료에 기재된 것을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同門 및 師生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의학인물은 약 40여명에 달한다.<sup>35)</sup> 이들 중 盧之頤와 張遂辰은 강학을 통한 중의학 전승의 방법론과 학과를 창시한 초기 ‘전당의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張志聰은 ‘전당의파’의 체계를 확립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어서 張錫駒와 高世栻은 전승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으며, 청말의 仲學輅는 侶山堂의 유풍을 그대로 계승하여 강학을 통한 전승에 공헌했다.

杭州에서 ‘講學’을 통한 중의학 교육방법을 탄생시킨 盧之頤의 原字는 晉公, 字는 子繇로 自稱 蘆中人이라 했다. 明萬曆27年(1599)에 태어나 清康熙3年(1664)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학을 이어받았고, 명의로부터도 전수받아 젊은 시기에 이미 의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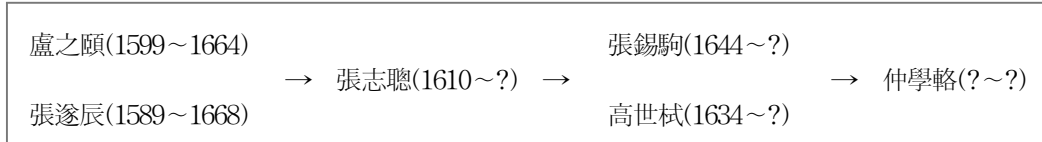
정통했다. 그의 부친인 盧不遠은 晚明 ‘尊經派’의 대표적인 醫家로 아들인 盧之頤의 의학에 영향을 주었다. 盧之頤는 부친의 미완의 원고인 『本草綱目博義』를 기초로 18년에 걸쳐 『本草乘雅半偈』를 편찬하였다. 그는 이 책의 자서에서 “1630년 武林(杭州)의 여러 군자가 우리 집에 모여 (張)仲景을 들고 靈(樞)·素(問)의 秘奧를 논급하였다.”<sup>36)</sup>고 하였으니, 그의 집에서 제가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고, 의학 관련 강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金匱疏論』, 『學古診則』, 『痰癰症論疏』등 중의학 강의에 필요한 저서들을 편찬하였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당시의 적지 않은 수의 명의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張志聰, 陳胤倩, 張天生 등도 있었다.

‘尊經崇古’의 錢塘醫派의 선구로 평가받는 張遂辰의 자는 卿子, 호는 相期, 西農老人이다. 明萬曆17年(1589)에 태어나 清康熙6年(1668)까지 살았다. 원적지는 江西이지만 후에 부친을 따라 杭州로 이주하였다. 張遂辰이 의학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자주 병에 걸려 치료하고자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스스로 의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仁和縣志』에 그에 대해 “어려서부터 연약하였으나 의로 치료하지 못하자, 스스로 방서를 검토하기를 위로는 岐鵠(헌기와 편작)으로부터 아래로는 근대의 劉·張·朱·李(곧 金元4대가 유하간, 장자화, 주진형, 이동원)의 대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뜻을 탐구하였다.”<sup>37)</sup>고 했다.

『傷寒論』연구에 조예가 깊었던 張遂辰은 明末·清初 新安醫派의 ‘錯簡重訂說’<sup>38)</sup>에 대응하여 ‘維護舊論’을 제창한 대표적인 의학인물이었다. 현재까지도 傷寒學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張卿子傷寒論』에서 그는 “(張)仲景의 書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sup>39)</sup>고 『傷寒論』을 예찬하였다. 그는 역대 『傷寒論』을 연구한 의가들을 모두 존중하면서 “諸家論述, 各有發明”<sup>40)</sup>이라 하여 어떤 의가에 대해

31) 余英時. 1993. p.192; 周志斌. 「論晚明商潮中的儒士」. 『長白論叢』1994-2(→復印報刊『經濟史』, 1994-3). p.70. 등 참조.  
32) 『麻城縣志』卷27. 「人物志·藝術」: “順菴橋泉之六代孫, 長業儒遇異人傳授方脉, 棄儒爲醫, 精於切脉洞悉表裏之微, 卒爲名醫”.  
33) 예를 들면 『本草綱目』의 저자인 李時珍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14세에 ‘童試’에 합격하였지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武昌에서 거행된 會試에 실패한 후 아버지의 업을 이어 醫가 되었다. (唐明邦 『李時珍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1. pp.19-22. 참조.)  
34) 周志斌. 「論晚明商潮中的儒士」. 『長白論叢』1994-2(→復印報刊『經濟史』, 1994-3). p.70.  
35)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朱德明. 「錢塘醫派述要」. 『中華醫史雜誌』34-2. 2004. p.74.

36)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自序」. “歲在庚午(1630), 武林諸君子大集余舍, 舉仲景而論及靈素秘奧.”  
37)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第12冊. 人民衛生出版社. 1962. p.411. “少羸弱, 醫不獲治, 乃自檢方書. 上至岐鵠, 下至近代劉·張·朱·李諸大家, 皆務窮其旨.”  
38) 이 학설은 『傷寒論條辨』을 편찬한 신안의학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사람인 方有執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汪滄雙, 牛淑平. 「試述新安醫學的學派與流派」. 『中醫文獻雜誌』2000年 4期 참조.  
39) 張遂辰. 『張卿子傷寒論』. 「凡例」(『中國醫學大成·傷寒分冊』).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83. “仲景之書, 精入無比.”  
40) 張遂辰. 『張卿子傷寒論』. 「凡例」(『中國醫學大成·傷寒分冊』).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283.



(Figure 2) 전당의파의 대표인물 및 사승관계

서도 폄하하지 않았지만, 명말·청초 이전 역대 의가 가운데 ‘尊王(叔和)贊成(無己)’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張滲辰은 王叔和의 편찬 순서가 仲景의 원서와 다를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으며, 그의『張卿子傷寒論』은 성무기의『注解傷寒論』에 근거하여 편찬한 것으로 다만 分卷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는 成無己의 說을 중심으로 郭雍, 張潔古, 龐安常, 李東垣, 朱震亨 등 의가의 설로 보충하였다. 이후 그의 사상은 張志聰과 張錫駒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고, 이들 두 인물과 더불어 ‘錢塘三張’으로 칭해졌다.

‘錢塘醫派’의 體系를 確立한 張志聰의 자는 隱庵으로 생졸 연대는 사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없다. 明萬曆 38年(1610) 태어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망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sup>41)</sup> 스스로가 張仲景의 후예라고 칭했던 張志聰의 선조는 河南 南陽人이지만, 후에 杭州로 이사하였고, 어려서 부친상을 당한 후 ‘棄儒習醫’하였는데, 張滲辰으로부터 의학을 배웠다.<sup>42)</sup> 그는 일생을 의학 경전 연구에 전념하였으니 『清史稿』에서 “張志聰의 학문은 靈樞·素問·傷寒·金匱로 귀결된다. 일생 동안 책을 저술하였는데 반드시 經法을 준수하였다.”<sup>43)</sup>고 평했다. 또한 張志聰은 盧之頤를 모방하여 侶山堂을 세우고 論醫講學하였는데, 盧之頤 시대보다 오히려 성황을 이루었다.<sup>44)</sup> 그는 ‘侶山堂’에서 講學을 통해 의학인재를 배양하고, 醫經을 함께 연구

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니, 그 결과 5년에 걸쳐『黃帝內經集注』를 편찬하기도 하였다.<sup>45)</sup>

의경 연구를 강조했던 張志聰은 역대 의서 중에서는 『傷寒論』을 중시하여 “상한의 도에 밝으면, 온갖 어려운 병을 만나더라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학에 입문하는 자는 상한으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sup>46)</sup>고 생각했다. 그의『傷寒論集注』는 張志聰의『傷寒論』연구의 결정관이자 錢塘醫派의 대표작인 까닭에 후세에 대한 영향도 가장 컸다.<sup>47)</sup>

張志聰의 뒤를 이어 전당의파를 계승한 인물로는 張錫駒와 高世栻이 있다. 張錫駒의 자는 令韶로 明崇禎 17年(1644) 태어났다. 사망 연대는 불확실하지만 그의 저서『傷寒論直解』가 1712년에는 이미 출간된 것으로 봐 그 후일 것으로 생각된다. 張錫駒 또한 『傷寒論』연구에 전력을 다해 『傷寒論直解』를 편찬하였다. 張志聰과 다른 점은 『傷寒論』으로 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과전서로 다만 상한증만을 치료하기 위한 책은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다.<sup>48)</sup> 張錫駒의 이러한 학술 관점은 당시 錢塘醫派의 존경사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세 의가들이 『傷寒論』등 경전의적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sup>49)</sup> 이밖에 그는 상한 치료에 胃氣의 養護를 강조하면서 『胃氣論』을 저술하였다.

高世栻의 자는 士宗으로 明崇禎 7年(1634) 태어났다. 사망 연대는 불확실하지만 그의 대표작인『醫學眞傳』이

41) 張志聰은 그의 저서인 『侶山堂類辨』의 「戊癸合化論」에서 “順治辛卯歲，余年四十有二”라고 한 것을 통해 그가 태어난 해가 1610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망연대에 대해서는 1680~83년으로 보는 견해와 169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李珍, 「吳山脚下“侶山堂”-寄情“錢塘醫派”」, 『中醫藥文化』2008年第3期, p.29. 참조.

42) 李珍, 「吳山脚下“侶山堂”-寄情“錢塘醫派”」, 『中醫藥文化』2008年第3期, p.28.

43) 『清史稿』, 「列傳289」, “藝術一”, “張志聰之學, 以靈樞·素問·傷寒·金匱爲歸. 生平著書, 必守經法.”

44) 이와 관련하여 清代의 王琦는 『侶山堂類辨』, 「跋」에서 “其時, 盧君晉公, 以禪理參證醫理, 治奇疾輒效, 名動一時. 張君隱庵繼之而起, 名與相埒, 構侶山堂, 招同學友生及諸門弟子, 講論其中, 參考經論之同異, 而辨其是非. 于是, 談軒岐之學者, 咸向往于兩君之門, 稱極盛焉.”(王琦, 『侶山堂類辨』, 「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78.)라 했다.

45)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朱德明, 「錢塘醫派述要」, 『中華醫史雜誌』34-2, 2004. p.75.

46) 張志聰, 『侶山堂類辨』, 『醫學入門』, 人民衛生出版社, 1983. p.50. “明乎傷寒之道, 千般病難, 不出于範圍焉. 故醫學入門, 當從傷寒始, 先難其所難, 而後易其所易.”

47) 이와 관련하여 청말의 仲學輅는 “凡陰陽氣血之生始出入, 臟腑經絡之交會貫通, 無不了如直掌矣. 隱庵之功, 豈在仲景之下歟?”라 평하기도 했다.

48) 張錫駒, 『傷寒論直解』, 「序」, 清康熙51年(1712) 錢塘張氏三餘堂刻本. “夫此書之旨, 非特論傷寒也, 風寒暑濕燥火六淫之邪, 無不悉具. 豈持六淫之邪而已? 內而臟腑, 外而形身, 以及血氣之生始, 經俞之會通, 神機之出入, 陰陽之變易, 六經之循環, 五運之生制, 上下之交合, 水火之相濟……詳悉明備, 至矣! 至矣!”

49)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朱德明, 「錢塘醫派述要」, 『中華醫史雜誌』34-2, 2004. p.76.

### Ⅲ. 결 론

1699년 완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65세 이상 살았다고 생각된다. 高世栻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한다. 28세 때 그는 이질에 걸려 스스로 치료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후 다른 의사를 불러 치료했지만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약을 복용함이 없이 저절로 병이 나았다고 한다.<sup>50)</sup> 이를 계기로 의학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당시 張志聰의 명망을 듣고 10년 동안 학습하여 명의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와 관련『清史稿』에 “張志聰을 좇아 軒岐와 仲景의 학을 강론하기를 10년 동안 하여 (의학의) 精奧를 깨닫게 되었다.”<sup>51)</sup>고 하였다.

이후 高世栻의 의술에 큰 진전이 있어 처방이나 용약에 있어 속류와 같지 않았다고 하며, 張志聰도 이 점을 인정하여『傷寒論集注』에서 그를 ‘高子’라 칭하였다.<sup>52)</sup> 그는 또한 스승인 張志聰이 주석을 완성하지 못한『本草崇原』을 계승하여 완성하였으며, 『靈樞直解』『素問直解』를 남겼는데, 張志聰의 주석이 난해하고 현학적이어서 새롭게 주를 더한 것이다. 그의 주석이 명쾌하고 직접적이어서 처음 의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錢塘醫派’의 강학을 통한 의학 전승은 청말까지 계속되었으니 仲學輅는 ‘侶山堂’의 유풍을 계승한 인물이다. 仲學輅의 자는 昺庭으로 청말 사람이지만 생물연대는 미상이다. 光緒年間의 舉人으로서 光緒6年(1880) 浙江淳安縣教諭를 지낸 그는 박학다식하여 文·史·哲은 물론이고 천문, 지리, 수리 등 학문에도 능통했지만, 晩年에 관직을 버리고 의학에 매진하였는데, 특히 본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仲學輅는 杭州에서 개설한 杭垣醫局에서 문진은 물론이고 侶山堂의 유풍을 계승하여 論醫講學하였는데 항상 거의 10명에 달하는 동료와 제자들이 함께 연구 토론하기를 20여년 이상 지속하였다. 청말 전란기에 그는 張志聰, 高世栻의 중요한 의학서적인『內經集注』, 『素問直解』등을 수집하여 浙江官醫局에서 重刊함으로써 錢塘醫派의 학술 의서를 현재까지 전하는데도 일조하였다.<sup>53)</sup>

본고는 張志聰을 대표로 하는 ‘錢塘醫派’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侶山堂’이라는 중의서원을 매개로 살펴 보았다. ‘侶山堂’에서의 강학이 ‘錢塘醫派’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강학이라는 형식으로 후진을 양성한 방법은 명말·청초 시기에 盧之頤로부터 토양이 마련 되어 있었다. 또 乾隆年間 ‘侶山堂’이 兵變으로 소실된 이후에도 仲學輅가 杭垣醫局에서 그러한 전통을 계승 하였으니 중국 지역의학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明末·清初 이래 지역의학의 융성은 明中期부터 두드러진 민간 의약업의 성장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맹아’ 현상이 출현하고, 인쇄 출판 등 각종 정보 전과수단이 발달하면서 의약지식의 보급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동인에 의해 남송 이래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던 杭州에서 ‘侶山堂’이라는 중의전문서원이 세워질 수 있었고, 이곳을 배경으로 새로운 의학 학술유파가 형성·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의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의료인력을 배출하던 것과 달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자들이 모여 유학의 경전을 논하거나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던 서원이라는 공간의 기능과 역할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의학을 논하고 교육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서원의 기능변화는 다수의 사대부들이 유학을 버리고 의학의 길로 나아가는 소위 ‘棄儒爲醫’ 현상의 출현과 맞물려 명말·청초의 또 다른 변화상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원에서 행해진 의학교육은 근대 이전 정식 학교 교육이 성립하기 이전에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행해진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중의학의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현대에까지 전해지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

50) 高世栻. 『醫學眞傳』. 「先生自述」.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37.

51)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第12冊. 人民衛生出版社. 1962. p.411. “乃從張志聰講論軒岐·仲景之學, 歷十年, 悉窺精奧”

52)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朱德明. 「錢塘醫派述要」. 『中華醫史雜誌』34-2. 2004. p.76.

53) 李珍. 「吳山腳下“侶山堂”-寄情“錢塘醫派”」. 『中醫藥文化』2008年第3期. p.30.

## 참고문헌

1. 『明神宗實錄』
2. 『清史稿』
3. 『麻城縣志』
4. 高世栻. 『醫學眞傳』. 人民衛生出版社. 1983.
5. 盧之頤. 『本草乘雅半偈』
6. 唐明邦. 『李時珍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1.
7. 大木 康. 「明末江南における出版文化の研究」. 『廣島大學文學部紀要』50卷 特輯號1. 1991.
8. 鄧洪波. 「中國書院的類型和等級」『貨夏文化』2000年 第4期.
9. 尙鉞. 「中國資本主義生產因素的萌芽及其增長」. 『歷史研究』1955-3.
10. 孫培青 主編. 『中國教育史』(修訂版). 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11. 余英時 著, 鄭仁在 譯. 『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12. 吳金成. 「明清時代의 江南社會-都市의 發達과 關聯하여」.
13. 조영록 외. 『中國의 江南社會와 韓·中交涉』. 집문당. 1997.
14. 汪滬雙, 牛淑平. 「試述新安醫學의 '學派'與'流派」. 『中醫文獻雜誌』2000年 4期.
15.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의 '新安醫學'流波」.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2-4. 2000.
16. 尹進. 「關於中國農業中資本主義萌芽問題」. 『歷史研究』1980-2
17. 이민호. 『근세중국의 국가경영과 재정』. 한국학술정보. 2008.
18. 이민호. 「明中期 民間 醫藥業의 成長과 '棄儒爲醫」. 『중국사연구』55. 2008.
19. 이민호, 안상우. 「명청시대의 신안의학-유·상·의 삼위 일체의 문화구조」. 『한국의사학회지』22-2. 2009.
20. 李珍. 「吳山脚下“侶山堂”-寄情“錢塘醫派”」. 『中醫藥文化』2008年 第3期.
21. 이충열. 「중국의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중국의학사의 최근 연구 동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18-1. 2004.
22. 張錫駒. 『傷寒論直解』
23. 張遂辰. 『張卿子傷寒論』
24. 張志聰. 『侶山堂類辨』. 人民衛生出版社. 1983.
25. 鄭林, 王國辰. 「張志聰醫學學術思想研究」. 『天津中醫學院學報』21-2. 2002.
26. 曹永祿. 「陽明思想에 있어서의 「分」의 문제-社會思想으로서의 성격-」. 『동양사학연구』6. 1973.
27. 朱德明, 張承烈. 「錢塘醫家學派沿革의 區域時代背景」. 『浙江中醫學院學報』27-4. 2003.
28. 周志斌. 「論晚明商潮中的儒士」. 『長白論叢』1994-2 (→復印報刊『經濟史』. 1994-3).
29.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錢塘醫派”對傷寒論研究的貢獻」. 『浙江中醫學院學報』28-4. 2004.
30. 竹劍平, 張承烈, 胡濱, 鮑曉東, 朱德明. 「錢塘醫派述要」. 『中華醫史雜誌』34-2. 2004.
31. 陳夢雷.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第12冊. 人民衛生出版社. 1962.
32. 陳宇光, 周高峰. 「從盧之頤到錢塘醫派」. 『吉林中醫藥』25-12. 2005.
33. 陳春圃. 「浙江中醫主要學術流派」. 『中華醫史雜誌』29-4. 1999.
34. 崔京艷. 「清朝中醫書院教育」. 『亞太傳統醫藥』2007年 第5期.
35. 彰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2-3. 1996.
36. 鮑曉東, 張承烈, 胡濱. 「試論“錢塘醫派”的治學態度與方法」. 『浙江中醫學院學報』27-5. 2003.
37.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38. 黃宗羲. 『明夷待訪錄』